

신뢰와 고객감동 서비스로
국내외 엔지니어링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

[주] 세진엔지니어링
TEL : 062-384-6333
대표전화 : 1588-4556

사랑과 정성으로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모시고
보살피겠습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062) 412-2000
행복주간보호센터

■ **특특뉴스**

국산차 판매 주춤 수입차 질주 계속

지난달 국산차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서도 수입차는 벤츠와 BMW, 테슬라를 앞세워 여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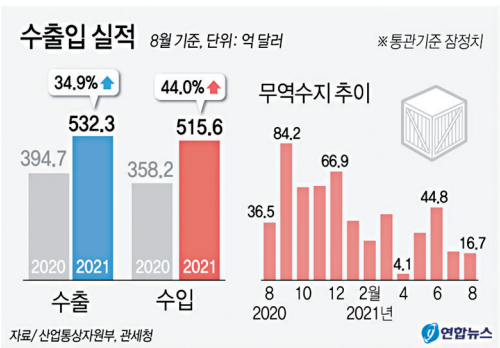
최근 카이즈유테이터연구소에 따르면 8월 신차 등록 대수는 12만5,906대로 전월 대비 20.8%, 작년 동월대비 3.4% 감소했다.

국산차 신차 등록은 10만1,305대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1% 감소했지만, 수입차는 2만4,601대로 4.6% 증가했다.

지난달 수입차 판매 1위는 벤츠(6,752대)로 작년보다 11.5% 늘었고, 2위는 BMW(5,217대)로 28.1% 감소했다.

테슬라다음으로는 아우디(1,344대), 폭스바겐(1,305대), 볼보(1,153대) 등의 순으로 많았다.

■ **그래픽 경제**



지난달 수출액 역대 8월 중 '최대치'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8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10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에 월 수출액 신기록 달성 6개월째다.

하반기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일부 있지만, 아직은 상반기의 호조세를 무리 없이 유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세계 교역 회복세가 뚜렷하고 우리 수출의 질도 좋아지면서 수출이 당분간 계속 선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8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9% 늘어 532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고치로 그간 1위였던 2018년 기록(511억8,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0억달러 이상 많다.

이로써 월별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최근 6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또한 6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리 인상에도 광주 아파트 가격 올랐다

0.24% 상승...전국 상승률 역대 최고

광주·전남 9월 주택사업경기 '악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광주 지역 아파트가격이 0.24%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8월 5주(8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한 0.31%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광주지역 주간 아파트가격도 0.24%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40%, 지방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확대한 0.22%를 나타냈다.

서울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된 0.21% 상승률을 보였다. 65주 연속 상승세이지만 5주 만에 상승폭이 소폭 둔화한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은 "광주지역 규제완화 기대감 있는 재건축과 인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시중은행 대출중단 및 금리인상 등 영향으로 일부 관망세 보이며 상승폭이 소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전주와 같은 0.40%, 지방은 전주보다 0.03%포인트 확대한 0.22%를 나타냈다.

상승하며 서울 상승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강남(0.28%)·서초(0.22%)·송파구(0.28%) 등 강남3구 역시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강서구(0.29%), 도봉구(0.24%), 용산구(0.21%) 등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인천(0.43%)과 경기(0.51%)는 전주보다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은 교통호재가 있는 연수구(0.59%)가 가장 크게 올랐다. 경기는 오산시(0.80%), 시흥시(0.72%), 평택시(0.68%), 의왕시(0.67%), 화성시(0.67%) 등이 오름세를 견인했다.

지방은 제주가 0.5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대전(0.34%), 울산(0.30%), 충남(0.29%), 충북(0.27%), 부산(0.25%), 광주(0.24%) 등은 상승했고 세종은 -0.01%를 기록, 전주(-0.02%)와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호조세를 이어가던 광주·전남지역 주택사업경기가 9월 들어 부정적 인식 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놓은 '2021년 9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광주 HBSI전망치는 64.7로 전월 전망치(95.6)대비 30.9포인트 하락했다. 전남도 53.3에 그치며 전월 전망치(94.4)대비 41.1포인트 낮아졌다.

광주·전남 모두 올들어 최저 전망치이다.

광주 HBSI전망치는 지난 5월 91.6에

서 6월 116.6으로 크게 오른 후 7월 104.5, 8월 100.0으로 3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전남도 지난 6월 106.6, 7월 112.5, 8월 94.4를 기록했었다.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조사하는 HBSI(Housing Business Survey Index)는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급시장 지표로 활용된다.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긍정적'임을, 그 반대이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주산연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주택사업자는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주택공급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컨디션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이용욱

제57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이용욱(53·사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임명됐다.

최근 실시된 국토교통부 인사에서 이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이 신임 익산국토청장으로 발령됐다.

신임 이 청장은 임실 출신으로, 전일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사우스햄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청장은 제29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1994년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도로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 개발전략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용욱 청장은 꼼꼼하면서도 의사결정이 빠르고 직원과의 소통이 원활해 신망이 두터하다는 평가다.

이 청장은 "지역발전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전남TP, 오늘 에너지특화기업 설명회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준비 기업 지원을 위해 6-7일까지 양일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6일 오전 11시 나주 혁신산단 내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4층 중회의실에서, 7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3층 오픈랩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장성 나노산단 내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도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충 오픈랩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같은 날 오후 3시 장성 나노산단 내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도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전남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

광주은행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육성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5,0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전남지역의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지난해 1억원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5,0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 12년간 총 4억3,000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전남·광주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희망찬 해남의 백년대계

신청사시대가 열립니다!

오백년 해남을 지켜온

守城松의 기상을 이어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갈

해남군 신청사가 문을 엽니다

군민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서남권 행정의 랜드마크로!

소통과 공감, 최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해남군